

우리나라ESCO와ESCO협회 현황

ESCO

우리나라에서의 ESCO는 에너지 저소비
형 경제·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91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개정
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 이듬해인 92년
삼성에버랜드 등 3개 업체가 등록함으로
서 활동을 시작한 이래 99년 12월 현재
54개 업체가 등록하여 활동 중에 있다.

ESCO란 주지하다시피 에너지사용시설에
선투자하고 그 투자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
감액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기업을
말한다. 따라서 ESCO는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 에너지
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에너지관리진
단 사업 등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사업을 주
업무영역으로 삼고 있다.

글 ■ 남장현 사무국장

I ESCO와 협회의 탄생

우리나라의 ESCO는 지난 70년대에 2차레에 걸친 국제에너지파동(오일 쇼크)을 겪고 난 이후 에너지자원이 전무한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에너지의 이용합리화는 필연적 전국민적 과제라는 인식하에 보다 안정적인 국가경제 및 산업구조체제를 이룩하고자 정부에서 1991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대폭 개정,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개념을 구미로부터 도입함으로써 그 탄생을 보게 되었는데 법개정 이듬해인 1992년에 삼성에버랜드(주) 등 3개사가 정부에 전문기업으로 등록하고 활동을 시작한 이래 1999년 12월 초 현재 54개업체가 산업자원부(에너지관리공단)에 등록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중에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ESCO란 제3자의 에너지 사용시설에 에너지절약시설을 자기 자본 또는 정부의 지원정책자금 등 제3자의 자금을 선투자하여 에너지사용시설을 고효율의 에너지절약시설로 개체함은 물론 그 시설의 운영방법의 합리화를 통하여 에너지절감을 도모함으로써 여기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으로 장기간에 걸쳐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에너지절약사업을 영위하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ESCO는 에너지절약형시설투자사업,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 및 에너지진단사업 등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제반 사업을 주요 사업영역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주도의 에너지절약정책을 수행하여 왔습니다만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이제는 더 이상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집행에 의존하기 보다는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창의성이 보다 효율적이게 됨으로써 일반 국민과 민간기업의 역할이 보다 중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정부에서는 에너지절약의 기수로서 ESCO를 본격적으로 집중 육성·발전시키는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ESCO협회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ESCO업계에서는 수년 전부터 일부 뜻있는 인사들간에 ESCO 상호간의 권익을 옹호하는 한편 국민과 기업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최고의 에너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ESCO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업체들의 협의체 구성이 심도있게 지속되어 오던 중 금년들어 논의가 본격화되어 협회설립이 가시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주요 ESCO업체들과 기타 에너지절약사업관계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지속에 본격적인 협회 설립작업에 돌입, 2월 26일 업계대표 6인으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설립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YTC에너지(주)의 김기석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여 6인위원들의 각고의 준비작업을 거쳐 4월 30일 협회의 창립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ESCO협회가 다가오는 희망찬 21세기의 문턱에서 뜻깊은 힘찬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협회의 초기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수고해 주실 초대임원진으로 삼성에버랜드의 최석곤 사업부장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뒤이어 오자현 부회장(EPS KOREA 대표)과 기타 3인의 이사 및 1인의 감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7월 23일에는 산업자원부로부터 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취득하고 8월 12일에는 사단법인의 설립등기를 완료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활동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8월 13일에는 협회임원진과 협회의 정회원사 및 특별회원의 대표들이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의 관계자들을 초청, 상의클럽에서 조찬간담회를 개최, 그동안 우리 ESCO협회가 설립허가를 받기까지 기울여 준 각별한 관심과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ESCO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를 위한 협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격

의없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11월에는 2차간담회를 인터컨넨탈호텔에서 개최하여 ESCO협회창립 이후의 활동상황을 정리하고 아울러 내년도의 ESCO사업전망을 검토하는 가운데 사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토론하고 사업발전을 위한 건의를 하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정책당국과 민간업체가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공조체제를 다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최석곤회장

II. ESCO협회의 목적

우리 ESCO협회는 ESCO의 건전한 발전과 권익옹호 및 상호 협력을 통한 친목과 복리증진에 두고 있으며 또한 ESCO사업관련 법령·제도의 개선과 기술향상을 통한 ESCO사업의 전문화를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회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에너지 절약사업을 통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설립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협회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 협회회원간의 친목 도모 및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
2. ESCO사업의 공신력 제고 및 회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자금의 대출·보증 및 사후관리의 보증 등 각종 공제사업
3.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공동구매 및 회원사 우수제품의 보급·확대 등의 회원사 지원사업
4. ESCO사업에 관한 지식, 기술, 운영에 관한 개발 및 보급사업
5. ESCO사업의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 지도, 강습 및 연구회 개최
6. ESCO사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평가 및 자료, 간행물의 발간 등 조사·연구사업
7. ESCO사업의 발전을 위한 관계법령·제도의 연구·개선 및 대정부 건의활동
8. ESCO사업에 관한 홍보활동
9. ESCO사업에 관한 정부의 위임·위탁사업의 수행
10. ESCO사업분야의 국내외 유관단체 및 기관과의 유대강화
11. 기타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각종 부대사업

III. ESCO협회의 회원제도와 현황

협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정회원과 특별회원의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는 ESCO로 등록된 업체와 ESCO사업과 관련을 맺고 있는 기관 및 업체들과의 구분에 따른 것입니다.

1. 정회원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에 의하여 에너지 절약전문기업(ESCO)으로 등록된 법인 및 개인사업자

2. 특별회원 : ESCO사업의 유관단체 및 기관과 에너지절약 기기의 개발, 제조, 판매 및 설치·시공업체의 대표 또는 담당 임원

협회는 12월 초 현재 정회원사 22사, 특별회원 6사로 총 28개사의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54개의 ESCO등록업체중 40%가량이 회원사로 가입하여 있어 협회가 한국의 ESCO들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미가입업체들의 조속한 가입이 촉구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협회의 임원진은 최석근 회장, 오자현 부회장, 이영학 감사와 3명의 이사(양승창, 박윤규, 이영형)로 구성되어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힘써주고 계시며 실무집행기구로서 사무국(사무국장 남장현)을 두고 있으며 협회사무실은 서울시청앞 삼성빌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IV. 협회의 활동내역

1. 정보제공활동

- 1) 법령 및 입찰정보 제공

관보 및 입찰정보지에 게재된 ESCO사업관련 법률의 제·개정 내용 및 ESCO사업 입찰관련정보를 모든 회원사에게 신속히 제공

- 2) 협회소식지의 발행

8월 23일부터 격주로 협회회원사,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및 ESCO관련 언론기관에 ESCO현황, 회원사, 협회 및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의 활동내용을 소개

- 3)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10월 18일 에너지업무 종사자들에게 협회 및 회원사소개, 각종 기술정보, 에너지 및 환경관련 기관 및 단체의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시작

- 4) 협회지발간

협회회원사들의 사업활동, 국내외 에너지절약 신기술 및 ESCO사업동향 등의 소개를 통한 ESCO협회의 위상 제고 및 ESCO사업의 발전과 확대를 위하여 협회지(ESCO)지를 창간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격월간으로 협회지를 발행하여 전국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대형건물, 공공기관, 교육기관과 연구소, 학회

및 ESCO와 에너지절약기제조업체 등에 배포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2. 대외활동

ESCO사업 유관기관이 주관·주최하는 행사의 후원 및 그들의 정보교류를 통한 ESCO사업과 협회의 홍보 및 위상강화 활동

1) E-MART와 에너지전시회

9월 1일 ~ 4일까지 코엑스에서 펼쳐진 '99에너지전시회 행사에 에너지관리공단과의 파트너로서 참가, ESCO사업 소개 및 협회 홍보활동 전개

2) 수요관리기술워크샵

10월 8일 대전의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연구원주최행사에 후원 기관으로 참가

3) 에너지절약기술워크샵

11월 4일부터 5일까지 대전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주최 행사에 후원기관으로 참가

4) 중국 에너지절약 시찰단 협회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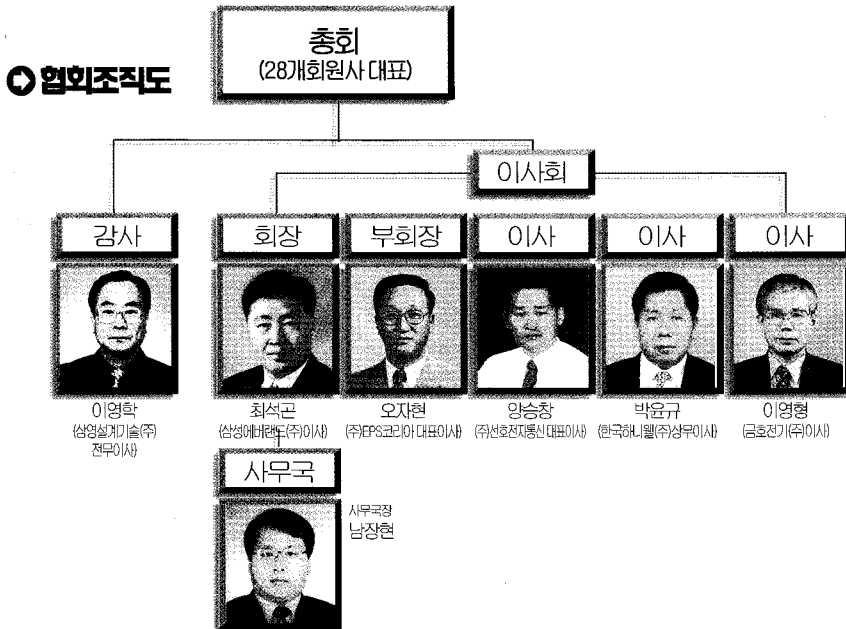
11월 15일 한국 ESCO사업의 현황파악과 양국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6명의 중국 방문단이 협회와 회원사(삼성에버랜드, EPS코리아) 및 에너지절약시설 현장(새한, 현대자동차, 포항제철)방문

5) ESCO사업의 발전을 위한 건의활동

그간 협회에서는 에너지 가격에 관한 공청회,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과의 간담회 등 공식, 비공식적인 기회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 ① 대출금리 인하조치 : 현행 5.5%에서 0~2%로 대폭적인 인하 조치
- ② 동일지방 투자한도 확대 또는 철폐 : 현재 50억원 한도를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 또는 폐지 요청
- ③ 중소기업 ESCO를 위한 신용대출 제도의 내실화,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 및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용보증제도 검토 요청
- ④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확대 : 현행 5%에서 10%이상
- ⑤ 대출금의 부채제외:사업실적이 축적되고 확대될수록 ESCO의 채무비율이 높아져 기업신용도가 악화되는 모순 방지 필요
- ⑥ 대기업의 계열사 투자시 50%한도제한 철폐 : 대규모 사업의 본격 실시 지원
- ⑦ 지원지침의 조기확정 : 매년 1월말~3월초 확정으로 영업 활동 차질을 초래하므로 전년도 11월말까지 조기확정 필요

ESCO협회는 이와 같이 설립된지 얼마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고 활발한 각종 활동을 통하여 한국 ESCO의 구심체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V. 결론

우리나라에서의 ESCO사업은 ESCO의 단순한 기업이의 창출이라는 문제에 국한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ESCO들이 왕성한 활동을 펼치면서 확실한 성과를 올릴 때 전체적으로는 에너지가 절약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도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ESCO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ESCO 스스로도 끊임 없는 기술개발과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처럼 협회를 통하여 뭉침으로써 ESCO 주변의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